

BUYSEMI 제공

(<http://www.buysemi.co.kr>)

각종 웨이퍼 에서 반도체 단위공정서비스 전문 업체

담당자 : 김 원일

(Tel : 02-471-2588 , Fax : 02-471-2589 , 010-9173-7016)

디스플레이 업계가 여느 해보다 힘든 1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비수기인데다 TV 시장이 획기적으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나마 기대했던 태블릿PC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패널 가격 폭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분기부터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에 따른 신제품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서 1분기 성적표가 올 한해 실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디스플레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애플 효과가 최근 주춤한데다 중저가 태블릿PC용 패널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 4분기 애플의 아이폰5S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등 애플 신제품 인기를 타고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LG디스플레이로 파악된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117·태블릿PC용 LCD 패널 매출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4분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리면서 1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미니용 LCD 패널을 올해부터 생산하면서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쌍두마차인 양사는 2분기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신제품이 나오면 실적 상승세를 다시 탈 것으로 기대된다.

근래 태블릿PC용 패널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 전반에 보내는 적신호다.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저가 패널 가격 내림세에 고심하고 있다.

중저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수량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가격 하락폭 또한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NPD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저가 7인치 태블릿PC용 패널 가격은 최근 보름만에 4%가 떨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분기 재고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덕분에 1분기 비록 계절적 비수기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초고선명(UHD) 패널과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태블릿PC 패널 출하량이 뒷받침되면 이익 구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침체를 겪었던 TV 시장이 1분기부터 다소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긍정적인 신호다.

오는 4월부터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는데다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 특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데보라 양 NPD디스플레이서치 이사는 “지난해 1분기 TV용 패널 출하량은 직전 분기 대비 12% 떨어졌지만 올 1분기는 5% 정도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올해는 TV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9.8% vs 애플 62.8%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의 매출원가율이 ‘마의 고지’로 여겨지는 50%대에 진입하며 원가경쟁력에서 애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매출 원가율이 50%대에서 60%대로 뒷걸음질 치면서 삼성전자에 우위를 내주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애플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뒤처져 수익성에서는 여전히 열세를 보였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매출원가율은 59.8%로 애플의 62.8%보다 3%포인트 낮았다.

매출원가율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통해 영업활동의 능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2011년 이후 3년간 1~3분기 기준 매출원가율을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는 2011년에는 68.5%를 기록해 58.9%의 애플보다 9.6%포인트 높았다.
2012년에는 매출원가율을 63.5%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낮췄지만 애플(56.5%)과는 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한 반면, 애플은 60%대로 밀려나면서 형세가 역전됐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매출원가를 줄이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반면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침체와 더불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 결과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로 매출원가율이 예년만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원가율이 70%대 초중반인 점을 고려할 때 삼성과 애플 모두 원가관리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과 달리 전 세계에 생산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매출원가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제조의 경우 중국의 팍스콘에 하도급을 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만큼, 매출원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한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매출원가율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영업이익률은 애플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3분기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7.3%인 데 비해 삼성전자는 16.8%로 10.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최근 3년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1년 1~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9.3%로 애플(31.9%)보다 22.6%포인트나 낮았으나, 2012년에는 13.9%를 기록하며 애플과의 격차를 20.5%포인트로 좁혔다. 지난해는 그 격차를 10%포인트 수준으로 좁히며 애플을 마침내 추격권에 두게 됐다.
두 회사의 사업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IM)만 따로 떼어내 애플과 비교할 경우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달리 스마트폰 외에도 반도체와 가전생활용품, 디스플레이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다른 사업부가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04조9천억 원, 영업이익은 19조4천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8.6%를 기록했다. 이를 기준으로 애플과 비교하면 격차가 한 자릿수인 8.7%포인트로 좁혀진다.

삼성, 애플 매출원가율 및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률 2011년 ■ 영업이익률 2012년 ■ 영업이익률 2013년
자료: CEO스코어 / 선그래프 매출원가율



지난해 알뜰폰 가입자가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고, 매출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 서비스 매출 등 알뜰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가입자는 총 248만명으로, 전년보다 2배가까이 증가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도 전년(1190억원)보다 107% 증가한 247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전년 말 126만명에서 122만명이 늘어났다.
알뜰폰 가입자 248만명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400만명)의 4.55%에 해당된다.

미래부는 우체국 알뜰폰 판매(9월 27일)와 이마트 알뜰폰 사업개시(10월 17일), 본인확인 서비스 정상화(11월)로 4분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2월 14만1000명이 증가하는 등 4분기에는 월 평균 가입자(10만1000명) 증가치를 모두 상회하는 등 가입자 증가 추이에 속도가 붙었다”고 소개했다.

알뜰폰 서비스 매출은 2474억원, 단말 매출은 3,78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12월 말 3만8796명, 지난 3일에는 4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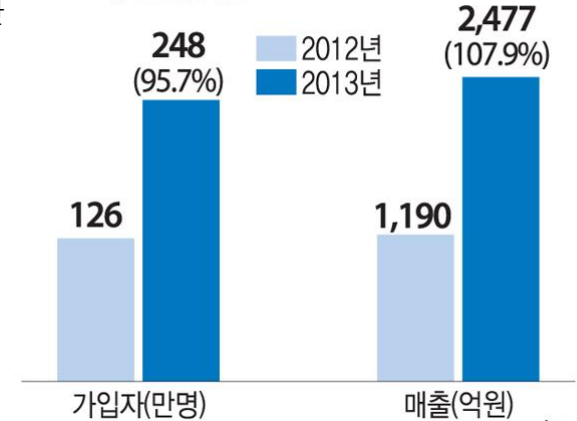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중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3만1316명으로 80.7%를 차지한 가운데 피쳐폰 비율도 48.9%로 나타나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래부는 지속적인 알뜰폰 저변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피쳐폰을 중심으로 단말 공동조달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알뜰폰 우체국 판매 확대와 알뜰폰 허브 사이트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 · 매출 추이

() 안은 증가율



자료:미래부

정문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76)이 KAIST에 2001년 300억원에 이어 이번에 215억원을 추가 기부한다. 정 전 이사장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선택이다. 정 전 이사장은 2001년 당시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대인 300억원을 KAIST에 기부했다.



이후 KAIST는 내부 논의를 통해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설치했다. 정 전 이사장은 기부 이후 삶에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01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IT와 BT의 융합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재 KAIST는 바이오 및 뇌과학 분야를 개척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처럼 뜻깊은 일에 보람을 느껴 이번에 추가 기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7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정정하지만 마지막 재산까지 정리했다. 그는 "총기가 남아 있을 때 재산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하루에 마음이 12번씩 바뀌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기부는 자기 자신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 전 이사장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라며 "이번 기부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1983년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미래산업을 창업했다. 2001년에도 '회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신조에 따라 회사 경영권을 직원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으며 지난해 주식까지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로 정 전 이사장이 KAIST에 기부한 금액은 총 515억원이다. 전액은 '정문술 기금'으로 적립되며 KAIST는 기부자 뜻에 따라 정문술 기금을 미래전략대학원 육성과 '뇌 인지과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류가 탐구해야 할 궁극적인 연구 분야로 뇌 분야를 선정하고 '뇌 인지과학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양성과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금을 맡아 관리하게 되는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정 전 이사장의 뜻에 따라 현재 우리가 가장 약한 분야인 뇌 인지과학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그 임무"라며 "1원도 헛되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이번 기부는 KAIST가 미지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AIST가 세계 속의 연구대학이 되는 데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약정식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리츠칼튼 호텔 금강홀에서 열린다.

전국에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한파를 막아낼 수 있는 첨단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원도 필름부터 보온 섬유 소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원도 필름 업체들이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건축 시장을 발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수 용도로 쓰이던 보온 섬유 소재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원도 필름은 자외선·적외선은 차단하면서 난방열(원적외선)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는 소재다.

최근 일명 `뽁뽁이`라는 단열 에어캡이 소비자 사이에서는 인기지만 가시광선 투과율도 낮고 창문을 통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원도 필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어 관공서나 호텔 등에서 인기가 높다.

처음에는 자동차에 주로 부착됐지만 유리 건물이 많아지면서 건축용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전문업체인 상보는 최근 원도 필름 사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해 자동차 시장에 안착한 이 회사는 올 해 호텔·마트 등 대형 건물에서 발주가 이어지면서 원도 필름 매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 대형 마트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원도 필름을 수주했다.

이미 생산라인을 풀가동중이어서 연내 증설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SKC와 미래나노텍은 지난 2012년 자동차·건축용 원도 필름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웠다.

기존 열차단 필름에 이어 건축용 시장 공략을 위해 열 반사와 흡수 기능을 모두 갖춘 필름을 개발했다.

상보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서 시범 설치한 후 5~10%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에너지 절감을 거두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보온 섬유 소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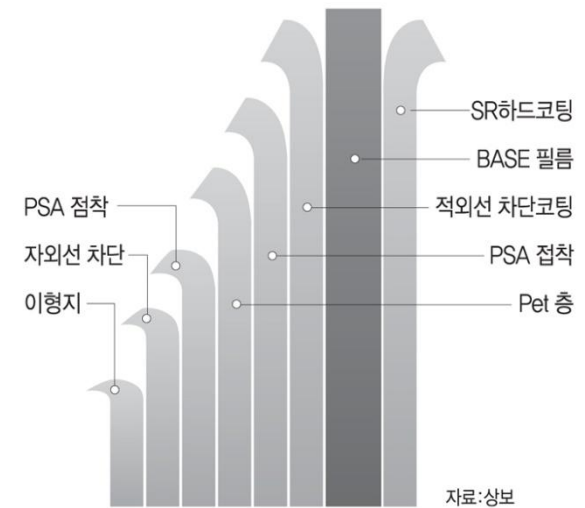
쓰리엠의 보온 소재인 `신슬레이트`는 달에 아폴로11호가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의 부츠에 처음 쓰였던 소재다.

이 소재는 쓰리엠의 멜트 블로운 공정으로 제작되는데, 섬유층 사이 무수하게 많은 미세 공기를 형성해 체열을 보호한다.

멜트 블로운 부직포는 직경이 10 μ m 이하인 미세 섬유들이 상호 결합해 거미줄과 같은 구조 형태를 가지는 3차원 집합체를 말한다.

산악인이나 탐험대들의 의류에 주로 채택됐으나 최근에는 기능성 브랜드 의류를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단열을 위한 원도 필름 구조



개점휴점 상태였던 국내 폴리실리콘업계가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업황 개선으로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생산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업계 시장 점유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실리콘은 여수 폴리실리콘 공장을 다음 달 재가동한다.
 현재 공장 설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생산인력을 충원하는 등 폴리실리콘 생산 재개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다.
 한국실리콘은 1만5000톤 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월 생산에 돌입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실리콘은 지난 2012년 12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냈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 10개월 만에 조기
 졸업하면서 공장 재가동 시기를 살피왔다.
 한국실리콘이 공장 가동 시기를 2월로 잡은 것은 최근 폴리실리콘 수요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제품 가격정보 사이트 PV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주 대비 2.27% 상승한 kg당 19.38달러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난 2012년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19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최대 49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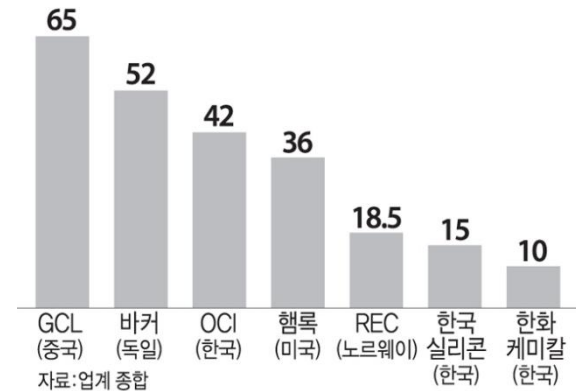
시황이 개선되면서 국내 생산을 중단한 KCC도 폴리실리콘 해외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KCC는 MEC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폴리실리콘 생산 합작법인인 PTC를 통해 3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상반기 가동한다.
 사우디를 거점으로 폴리실리콘 사업을 재개하고 국내 생산라인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가동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폴리실리콘업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물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을 준공한 한화케미칼이 3월부터 1만톤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본격 양산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2
 만톤 이상 신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동되는 국내기업 폴리실리콘 생산라인만 연산 7만톤 규모에 달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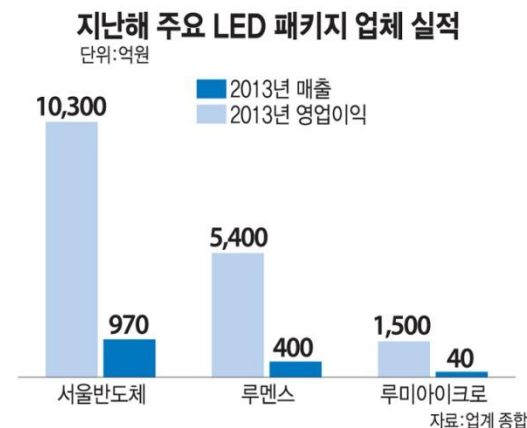
폴리실리콘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계 태양광 수요가 40GW를 넘어서면 폴리실리콘 수요는 24만톤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가격에서 함록, 바커 등 정상권 기업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등 당분간 생산물량은 급격한 확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 등 변수의 영향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등 최근 영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주요 기업 생산능력
 단위:천톤, 2013년 말 기준



서울반도체·루멘스·루미마이크로 등 국내 주요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업체들이 지난해 잇달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장 전망에 청신호를 보냈다.
지난 2년여간 LED 공급 과잉 여파로 흑독한 시련기를 견디면서 시장 구조조정의 파고를 넘어서는 업체들이다.
LCD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유닛(BLU)에 의존하던 사업 영역을 조명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다각화한 결실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LED 패키지 업체인 서울반도체·루멘스는 각각 지난해 매출액 1조원과 5000억원을 돌파했다.
루미마이크로 역시 1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에 이어 최대 실적을 돌파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약 1조300억원을 달성하면서 LED 패키지 전문 업체 중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20%에 육박한다. LED 조명 매출 비중이 BLU 비중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

루멘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약 54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 회사 역시 20% 이상 성장했다.
조명 매출액 비중을 15%로 늘렸고, LED 패키지와 BLU 모듈을 함께 개발해 오픈셀 방식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한 덕이 컸다.
LED 패키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영업이익률도 각각 10% 안팎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루멘스 관계자는 “TV 시장이 부진한 편이지만 BLU용 패키지 효율을 높이고 모듈 설계를 바꾸는 등 자구 노력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른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전기 자회사인 루미마이크로는 지난해 1170억원에서 약 30% 신장한 15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엔도조명에 자체 개발한 LED 패키지·형광등(튜브)을 공급하면서 일본 내 LED 형광등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올랐다.

LED 패키지 전문 중견 업체들의 실적 반등은 삼성전자 LED사업부와 LG이노텍 LED사업부가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전자 LED사업부는 매출 1조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LG이노텍도 지난해 LED 사업에서 적자를 이어갔다.

LED 패키지 시장은 지난 2011년 이후 공급 과잉을 빚었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다.
기대만큼 조명 시장이 빨리 커지지 않은데다 BLU용 패키지는 이익 구조가 취약하고 TV 제조사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최근 수년간 TV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룹 계열사 내부 BLU 시장에 주로 의지해왔던 삼성·LG의 LED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다.
반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해외 조명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조명 시장에서는 표준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안정기나 기구 설계 등 규격이 제각각이라 대기업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LED 패키지 주요 시장이 BLU에서 조명으로 옮겨가면 향후 대기업보다 유리한 시장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일모직, 전자재료 14~16%·케미칼 5% 등 격차 커

삼성 성과인센티브 ‘PS’ 지급 비율의 윤곽이 드러났다.

9일 삼성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10% 내외의 PS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상 PS는 매년 1월 31일에 일괄 지급됐지만,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29일 시행된다.

삼성은 현재 각 계열사 사업부별로 PS 지급 범위에 대해 막바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는 각 계열사가 연초 수립한 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20% 이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의 성과급제도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끈 무선사업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PS 상한선인 50%를 일찌감치 확정했다.

지난해 18.2%를 받았던 반도체사업부는 40% 내외가 유력하다.

또 지난해 50%를 받았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올해 15~18%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계열사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보다 낮은 수준의 PS가 책정될 전망이다.

우선 제일모직은 사업부별로 세 배의 격차가 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재료 부문은 14~16%, 케미칼 부문은 최대 5%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관된 패션 부문은 삼성에버랜드가 PS를 지급한다.

지난해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디스플레이는 10% 중후반대가 점쳐지고 있지만, 지난해 말 LCD와 OLED로 나뉘어 있던 사업부의 통합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7~9%, 삼성전기는 5~7%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올해 PS 지급하지 않는 계열사가 전년대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중 한 관계자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실적이 저조한 만큼, 작년대보다 PS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신경영 20주년 격려금을 위안으로 삼기도 한다”고 전했다.

올해 PS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계열사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증권 등이 꼽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신경영 20주년 격려금 지급도 무기한 연기한 만큼 ‘PS는 꿈도 못 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증권의 경우 2010년부터 PS를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 PS는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지급된다.

삼성은 지난 13년간 사업부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PS 지급 비율을 개인별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A등급은 사업부 인센티브의 1.4배, B등급은 1.2배, C등급은 1.0배, D등급은 0.9배, E등급은 0.8배를 준다.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업부의 직원이 A등급일 경우 28%를 받고, E등급 직원은 16%로 줄어든다.

변경된 지급률은 올해 부장급 이상부터 적용되며, 내년엔 차장급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 계열사 및 사업부별 PS 전망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50%
	반도체사업부	40%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15~18%
	생활가전사업부	12%
제일모직	전자재료사업부	14~16%
	케미칼사업부	5% 이하
*삼성디스플레이		15~19%
삼성생명		7~9%
삼성전기		5~7%

*사업부 통합으로 변동성 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소상공인 경기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수준(39.3%)으로 예상한다는 뒤를 이었으며, 올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내수침체(46.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가상승(16.8%), 인건비·구인난(8.3%), 대기업 시장잠식(7.6%) 순이었다.

매출액(59%), 경상이익(64.5%), 자금사정(54.5%)도 지난해보다 줄어들거나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새해 사업운영 계획은 응답자의 82.7%가 작년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축소·업종전환·사업철수(13.3%)를 계획한다는 응답이 사업 확장(4%)보다 많았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 주력(30.9%), 물가 안정(26.2%), 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9.5%),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8.8%), 소상공인 자금 확대(8.4%) 등을 꼽았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각 기관의 경기 회복 기대에도 소상공인 대다수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경제 양극화 해소와 내수 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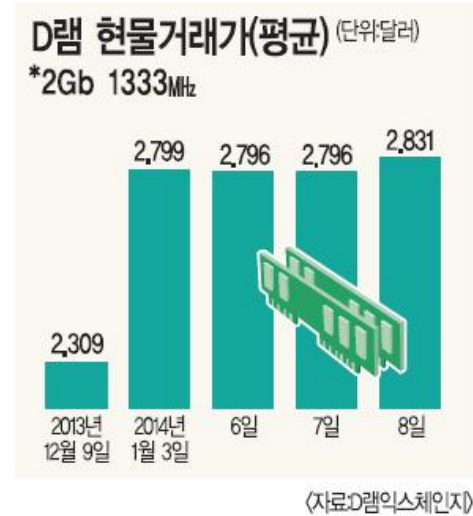
소상공인 새해 전망 (단위:%)



주력제품 한달새 22.6% 치솟아... 단가 인하위해 메모리 용량 줄이기도
3강체제 고착화... 수요 늘어도 생산확대 안해

D램 거래가가 한 달 사이 급격히 오른 등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확보했던 램을 모두 소진한 일부 PC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신제품 PC의 기본
메모리 용량을 줄이거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PC의 업그레이드 시기를 늦추거나, 중고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D램 가격정보사이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날 D램 주력제품(2Gb 1333MHz)의 거래가격은 2.831달러로,
지난달 9일 2.309달러 대비 22.6% 치솟았다.
12월 한 달 동안 D램 가격은 2.3~2.4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1월 3일에는 2.799달러로 올랐다.
6일과 7일에는 2.796달러로 소폭 하락했지만 8일에 다시 상승했다.



D램 거래가가 이처럼 지속 상승하는 것은 시장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엘피다가 마이크론에 흡수합병 되면서,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강 체제가 굳어졌다.
점유율은 삼성전자 62.7%, SK하이닉스 28.5%, 마이크론 26.2%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D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급증해도 생산량을 굳이 늘리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D램 수요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454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IBK투자증권은 수요증가율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PC 제조사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신제품 단가 조정을 위해 기존 4~8GB씩 기본으로 장착했던 램 용량을 4GB 미만으로 줄이고, 대신 유상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해에 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업그레이드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PC 부품 가격정보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PC용 DDR3 4GB 램의 가격은 지난해 1월 초 2만원대 후반에서 6월께 3만원대 중반으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4만5000원대를 찍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라, 제조사들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 한 D램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이라며 "DDR3 제품에 대한 각 제조사의 점유율이 안정권에 들어선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한 치킨게임은 DDR4 상용화 이전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MS(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MS카드 고객은 이달 내로 IC(집적회로)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월 3일부터 MS카드로 자동화기기(ATM) 현금 인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MS카드의 IC전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카드 교체를 추진해왔다.
교체 대상은 현금인출 기능이 들어있는 모든 MS카드다.
MS현금카드와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카드 기능은 2월 3일부터 쓸 수
없고 신용카드 결제는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MS카드는 작년 말 기준 약 67만장이 남아있다.

이중 하루 평균 1만3000여장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MS카드 위·변조 피해는 2007년 32억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37억원, 2009년 44억원,
2010년 88억원, 2011년 99억원, 2012년에는 109억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IC카드 교체에 힘입어 98억원으로 피해액이 소폭 줄었다.

하지만 복제 사고에 MS카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현금인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추후 불법복제로 인
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히 교체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MS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IC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이후부터 마련된 각 영업점의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 없이 즉시 교체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현금카드(약 6700만장)의 99%를 IC카드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남아있는 MS카드 전환을 위해 1월을 ‘IC전환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금융사 CEO가 직접 전환작업을 챙기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MS현금카드를 소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체 실적이 부진한 금융사에 대해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5년 전면 금지되는 MS신용카드 결제도 전면 IC카드 결제로 전환한다.

마그네틱카드 위·변조 피해 현황



美램버스에 과다 지불한 기술사용료 일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 업체인 램버스에 지불한 반도체 특허 사용료 중 4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되돌려받는다.

해외 업체에 이미 지급한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환급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쟁 업체에 비해 삼성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항간의 지적을 단번에 해소하는 성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10년 연장하는 재협상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며 "4억달러대 특허 사용료를 10년에 걸쳐 돌려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램버스의 악연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램버스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2010년 양사 간 소송을 끝내는 대가로 7억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램버스에 선금금 2억달러를 내고 분기당 2500만달러의 사용료를 5년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 조건은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업체가 램버스에 지불하는 사용료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전자 특허팀은 지난해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이 부분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뒀고, 결국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와 램버스는 당초 2010~2014년까지 유효한 종전 계약을 작년 말로 조기 종료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새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삼성이 지난 4년간 지급한 과다 로열티의 상당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램버스 사정을 감안해 일시에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내야 할 특허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에 2200만달러를 선지급하고 향후 5년간 분기당 150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만약 4억달러 환급 조건이 없었다면 삼성이 내야 할 분기당 사용료는 3000만달러에 육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특허 사용료는 시장 점유율에 비례한다.

메모리 시장 점유율(D램·낸드플래시 포함, 2012년 기준)은 삼성이 35.4%, SK하이닉스가 16.6%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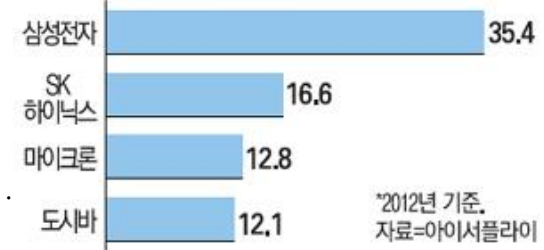
삼성과 램버스의 2010년 계약 당시 '조건을 추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음에도 대규모 사용료 환급을 도출해낸 건 램버스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1위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램버스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램버스의 반도체 특허 가치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램버스 측이 '반도체 공룡'으로 성장하는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윈윈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은 램버스와의 장기적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한층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허팀에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단위=%)



국내 주요 대기업 중국법인은 올해 상반기 현지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중국 법인을 둔 주요 대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BSI가 111.7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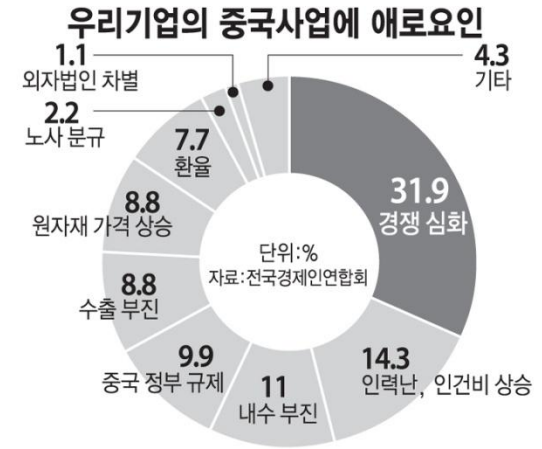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각 부문별 BSI 수치도 내수판매(123.9)와 한국 수출(134.6), 제3국 수출(121.4), 투자(119.4), 자금사정(110.3), 고용(107.5), 채산성(125.0) 등 대부분 기준선을 웃돌았다.

이 같은 전망치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의 내수 및 투자 등 각종 지표의 증가율, 현지 정부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현지 사업의 애로점으로 중국 내 경쟁 심화(31.9%)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3%), 중국 내수판매 부진(11.0%), 현지 정부 규제(9.9%) 등을 들었다.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중국 정부규제 및 외자법인 차별에 대한 완화 노력(36.4%)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25.0%)이나 위안화 직접결제 확대 지원(11.4%) 등을 주문했다.



올해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기계 · 철강 등은 수출 전망이 밝겠으나, 디스플레이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산업부는 올해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기 `혼풍'에 따라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미국의 제조업 복원 노력, 일본의 엔저정책,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정책이 수출 주도의 우리 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5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석유제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엔저를 등에 업고 바짝 추격하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 장비에 맞서 우리 업체의 핵심기술 선점과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올해 460만대로 작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차 교체 수요, 1월 개별소비세 인하(7→6%),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추가 관세 인하 등이 호재다.

통상임금 확대, 환경규제 강화가 업계에는 부담 요인이다.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세계 자동차수요 증가 덕에 작년보다 4.7% 늘어난 5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화학은 4.1% 증가한 504억 달러, 가전은 3.9% 늘어난 153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전망됐다.

이중 가전은 스마트TV 수요 확대와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등의 대형 특수로 생산규모도 30조원으로 2.4% 늘어나는 등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가 기대된다.

지난해 수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조선 · 해양플랜트, 기계, 철강은 올해일부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세계 선박경기 침체, 철강 과잉 공급 등으로 업황이 밝지만은 않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액정표시장치(LCD)의 공급 과잉으로 5.3% 줄어든 322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2.4%에 이어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품목별 수출여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질강화위원회, 무역투자진흥회의, 30대 그룹 및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투자 활성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14년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단위 : 억달러, 증가율은 전년대비) >

구분	성장유지					개선			부진
	반도체	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패션	조선·해양플랜트	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13년 수출(잠정)	571 (13.2%)	148 (16.8%)	487 (3.2%)	484 (5.5%)	159 (1.2%)	373 (△6.3%)	464 (△3.2%)	326 (△11.9%)	340 (△2.4%)
'14년 수출(전망)	586 (2.6%)	153 (3.9%)	510 (4.7%)	504 (4.1%)	165 (3.8%)	430 (15.3%)	480 (4.3%)	330 (1.2%)	322 (△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사상최대 경신, 올 1분기 실적 유지..올해 연간 실적 호조 계속될 것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성장세가 주춤한 실적을 내놨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7일 매출 59조원과 영업이익 8조 3000억원의 4분기 잠정실적을 내놨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0.14%, 영업이익은 18.31%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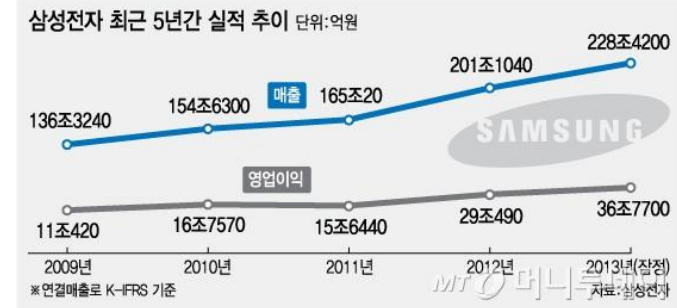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매출은 5.2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11% 줄었다.

전분기나 전년과 비교해 이익폭은 감소한 것.

다만 지난해 전체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8조 4200억원과 36조 77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26.6% 늘어난 것이다.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삼성전자 내부에선 새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가 높다. 환율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되지 않는 한 성장세는 이어간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매일 6258억원어치 팔아..1007억원 남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IM(IT·모바일)과 반도체, CE(가전), DP(디스플레이) 등 4개 주요 사업부문에서 총 228조 4200억원의 매출에 36조 77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365일)하면 매일 6258억원 어치를 전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이를 통해 매일 1007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지난 4분기에는 매출 6413억원어치를 팔고, 902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267억원 매출에 38억원을 벌었다.

1시간마다 현대차 그랜저(HG300 대당 3500만원 기준)를 763대씩 팔아야 가능한 실적이다.

이는 갤럭시 시리즈 등 스마트폰의 사업의 호조에 TV와 반도체 등이 뒤를 받쳐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한해는 삼성전자 IM 부문이 전체 이익의 70% 내외를 올렸다.

◇1분기, 태블릿-UHD TV-반도체, 삼두마차가 이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고 1분기의 마케팅 비용도 4분기보다 줄어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력사업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것.

시장조사기관 SA(스트래티지어널리틱스)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3억 9830만대(점유율 34.6%)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2년부터 태블릿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에 이어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실적의 청신호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판매량은 2012년 1660만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4000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8000만대에 육박하며 애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도 메모리를 중심으로 첨단공정 전환 가속화와 V-낸드 조기 양산 등으로 실적 호조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4분기 사상최대 매출과 이익을 냈던 TV 부문이 올해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이 올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력사업 분야가 탄탄해 1분기 실적이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 유지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연간 전체적으로도 실적 호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8조원대로 떨어졌다.

원화 강세, 특별 격려금 지급 등 일회성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2013년 4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8조3000억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59조원을 잠정 기록했다.

앞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 10조1635억원, 매출액 59조834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분기별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8.3% 줄어들면서 8조원대로 떨어졌다.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012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228조4200억원, 영업이익 36조77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2012년보다 13.6%, 영업이익은 26.6% 증가하면서 2012년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날 공시된 것은 잠정 실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된 수치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확정 실적을 공시한다.

◆ 연말 '보너스' 얼마나 줬길래

4분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두고 증권사들은 원화 강세, 특별 격려금 지급 등 일회성 요소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회성 요소는 올해 1분기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4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둔화하면서 IM부문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나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은 올해 실적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환율은 1달러당 1062원으로, 전분기(1109원)보다 달러 가치가 약 4%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벌어들인다. 원화 강세로 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사업 부문까지 약 3100억원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전 직원에 신경영 20주년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번 실적을 깎아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보너스)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기본급(수당을 제외한 월당 임금)의 최대 100%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번을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와, 연간 실적에 따라서 연봉의 최대 50%를 제공하는 성과 인센티브(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옛 PS)다.

올해는 TAI, OPI와 별개로 특별 격려금이 추가됐다.

당초에 증권업계는 특별 격려금을 3000~4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일부 증권사에는 금액이 7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특별 격려금은 1회성 보너스여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이세철 연구원은 “신경영 20주년 특별 보너스 비용은 7000억원으로 시장예상 대비(3000억원)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 대상이 삼성전자 국내 정직원뿐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 전체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전직원은 32만6000명이다.

◆ “올해 1분기 실적 회복, 평탄치 않다”

4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 단지 일회성 요인 때문이었다면, 1분기(1~3월) 실적은 회복세를 걷는게 맞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과의 경쟁 심화, 삼성전자의 기존 스마트폰 판매 둔화, 디스플레이 부문 악화 등 중장기적인 우려 요소가 있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송중호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도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연구원은 “1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이 없더라도 큰 폭의 실적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애플과의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IM(IT·모바일) 부문의 기존 제품 수요 둔화, 애플의 차이나 모바일 판매 등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2분기(4~6월) 이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애플과의 신제품 경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앞의 이익 쫓다 체질 개선 ‘뒷전’ 완전한 하이테크로 경쟁력 갖추야

새해 벽두부터 엔저(円低)가 화두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벌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수출 관련 업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105엔으로 절하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엔화 가치가 115엔까지 떨어지면 전체 수출은 무려 4.0% 각각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철강,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기술(IT) 등 수출 주력 업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선 최근 국내 산업의 수출을 이끌었던 현대·기아차가 엔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업체는 벌써 엔저를 이용한 마케팅전을 펼친다.

이미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캠리의 무이자할부 기간을 연장(12개월→13개월)하는가 하면, 전기차인 프리우스 플러그인(PHEV) 모델 가격도 약 2000달러 내렸다. 닛산도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가격을 최대 10%까지 낮췄다.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역시 엔저 후폭풍과 지난해 4분기 실적 우려 등으로 올 들어 주가가 5%나 급락했다.

전기전자, 석유화학, 조선업계 등 수출 기업이 예외 없이 엔화 약세의 영향을 입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442억 달러(약 4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엔저는 과거에도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2005년 1분기부터 2007년 1분기까지 2년간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최대 760엔대까지 내려가면서 당시 우리 기업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여파는 전체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2004년 6.75%를 기록했던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5.86%로 떨어진 데 이어, 2006년 5.24%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수출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년 사이 반 토막 났다.

2004년 8.23%에서 2005년 5.62%로 급락한 데 이어, 2006년엔 4.9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엔화가 내리막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이미 원·엔 환율이 10% 하락하면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1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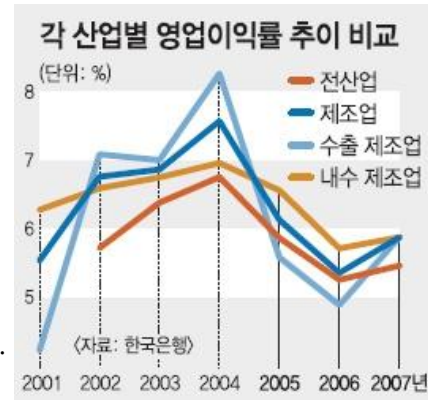
2000년대 후반 이후 엔고 덕에 호황을 누려 온 업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자업체 임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연구·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를 못한 게 현 상황을 불러온 이유 중 하나” 라면서 “호시절 체질 개선을 못한 점에 있어서는 기업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법은 다름 아닌 일본에 있다’ 고 지적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5년 이상 슈퍼 엔고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일본의 선도 기업은 꾸준히 제품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 ‘제2의 도약’ 을 준비했다.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새해 초부터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의 `미세 공정 전환 전쟁`이 뜨겁다. 1위 대만 TSMC를 추격하는 2위 사업자의 미국·유럽 공장 투자가 잇따른다. 애플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놓고 삼성전자와 겨루는 TSMC의 통 큰 투자 계획에 애플과 반도체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공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부다비 소재 투자회사 ATIC는 글로벌파운드리 뉴욕 반도체 공장에 2년간 1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20·14나노(nm) 반도체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 ATIC는 AMD와 2009년 세웠던 합작사 글로벌파운드리 지분을 지난해 모두 사들인 최대 주주다.

이브라힘 아자미 ATIC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3~5년간 급속히 성장할 20·14nm 공정 생산 시설을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손익 분기점은 2015년이라 내다봤다.

2012년 세워진 뉴욕 공장은 300mm 웨이퍼 월 6만장을 생산한다. 아자미 CEO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독일·싱가포르에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파운드리의 대규모 투자는 파운드리 선두 기업 TSMC의 잇따른 20nm 공정 투자에 대항하는 조치다.

이달 20nm 반도체 대량 생산에 돌입하는 TSMC는 대만 남부 공장에 17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올 상반기 20nm 공정 기반 AP 차기작 생산을 시작한다.

이에 미세 공정 반도체를 적극 채용할 애플 반도체 공급에 있어 또 하나의 경쟁사로 부상한 글로벌 파운드리 행보에 업계 이목이 쏠렸다.

애널리스트들은 TSMC가 20nm 반도체 투자로 삼성전자에 대항해 애플의 `A8`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장중모 TSMC 회장은 지난해 10월 “20nm 반도체가 1분기 양산에 돌입해 2014년 2분기부터 TSMC의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16nm 생산도 앞뒀다.

TSMC의 28nm 반도체가 지난해 기록한 매출은 54억달러(약 5조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격적 투자 계획을 내놓은 두 선두 파운드리 업체는 올해 고도 성장을 예견한다.

타이페이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애플에만 올해 16만5000개의 20nm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며 TSMC 연 예상 매출의 1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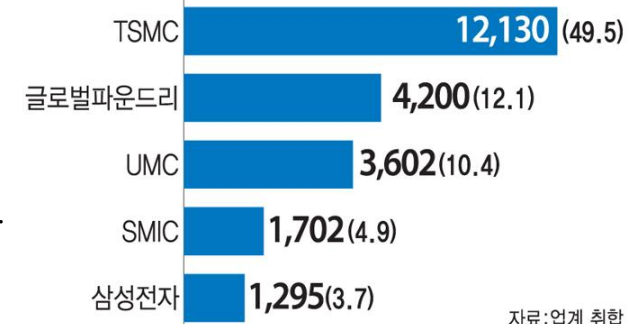
장 회장은 모바일 기기 수요 성장에 힘입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자신했다.

아자미 CEO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은 PC 수요 저하로 타격을 입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모바일·태블릿PC 산업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며 “하지만 글로벌파운드리의 아웃소싱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 이라 말했다.

자동차·모바일·생활가전이 주요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연구개발(R&D)도 확대할 것이라 부연했다.

2012년 파운드리 업계 매출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안은 점유율, %



자료:업계 취합

5년 뒤에도 DVD플레이어가 남아 있을까?

미국 타임지(誌)는 2일(현지시간) ‘5년 내에 사라질 5가지 기술제품’이라는 기사로 곧 사라질 제품들을 골라 소개했다.

우선 DVD·블루레이 플레이어다.

미국에서는 영화를 포함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DVD플레이어가 ‘멸종’하고 있다.

영화를 감상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던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2013년을 마지막으로 성장세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타임은 넷플릭스를 ‘주문형 영화계의 아이튠스’라고 소개하면서 “재미있게도 아이튠스 역시 (넷플릭스를 따라) 영화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6년 남짓한 기간에 길 찾기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13억대나 팔렸다.

길 찾기만 할 줄 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2000년대 초중반에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금은 매년 15~20%씩 매출이 줄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도록 배터리가 개선되고 GPS 시스템이 내장된 신차가 많이 팔리는 추세다.

전화모뎀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인의 3%에 해당하는 900만 명은 여전히 전화모뎀을 쓰고 있지만 케이블망과 위성 인터넷 같은 대안이 확대되면서 전화모뎀 인터넷은 조만간 사라질 형편이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200달러 미만의 저가 카메라도 한물간 제품이 됐다.

타임은 아직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저가 디지털 카메라의 긴 배터리 수명과 광학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 좋아지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70년 정도 사용돼온 자동차 열쇠도 과거의 유물이 될 처지다.

물리적 열쇠 없이 원격 시동까지 걸 수 있는 스마트키에 이어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 열쇠의 미래는 앱스토어에 있다고 타임은 전망했다.